

동북아역사 리포트



Vol. 50

NORTHEAST ASIAN HISTORY REPORT

2023년 10월 15일

‘한중호조’의 아름다운 기억 -1920년대 한중 관계의 역사 속에서 상호협력(互助)의 교훈을 찾는다

배경한_전 신라대학 사학과 교수

1. 한중 관계의 곤경과 ‘협력의 역사’ 찾기
2. 3·1운동, 5·4운동과 한중 상호 인식의 대전환
3. 1921~1923년 중한호조사 결성과 한중 연대 개시
4. 1924~1928년 국민혁명과 한중연대의 본격화
5. 1920년대 한중연대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

‘한중호조’의 아름다운 기억

-1920년대 한중 관계의 역사 속에서 상호협력(互助)의 교훈을 찾는다

배경한_전 신라대학 사학과 교수

1. 한중 관계의 곤경과 ‘협력의 역사’ 찾기

최근 한중 관계는 악화일로에 있다. 그 배경에는 일부에서 ‘신냉전’이라고 부를 만큼 날로 악화하고 있는 미중 관계가 있다. 근본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세계 패권 경쟁에서 기인하는 한중 관계의 곤경은 어디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할까? 국제 정치나 국제 경제를 비롯한 사회과학 쪽에서는 현재 벌어지는 한중 간의 갈등, 대립의 원인과 그에 따른 처방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 글은 그러한 현상 분석적 접근을 시도하기보다는 한중 관계의 긴 역사 속에서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보려는 데 목적이 있다.

모두가 알듯이 역사에는 다양한 모습이 있다. 한중 관계의 역사를 놓고 말한다면, 두 국가 혹은 두 국민 사이에 교류와 협력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던 반면, 갈등과 대립, 배척이라는 부정적인 측면 또한 늘 있어 왔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과 중국이 겪고 있는 대립과 갈등의 국면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당연히 교류와 협력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의 역사를 강조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1920년대 한중 관계 속에서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찾아 그것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반대의 역사, 곧 대립과 갈등이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거나 가볍게 보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2. 3·1운동, 5·4운동과 한중 상호 인식의 대전환

잘 알려져 있듯이 1919년에 일어난 3·1운동은 한국 현대사의 출발점이다. 그리고 그보다 두 달 뒤에 일어난 5·4운동은 중국 현대사의 출발점으로 인식한다. 3·1운동과 5·4운동은 제1차 세계 대전 종전 직

후 파리에서 열린 강화회의를 계기로 일어났다는 점에서 같은 출발점을 가지고 있다. 다만 3·1운동은 파리 강화회의에서 한국 독립 문제가 다루어져야 한다는 한국인의 호소가 표현된 것이었던 반면, 5·4운동은 파리 강화회의를 통하여 패전국 독일이 강점하고 있던 산둥(山東) 지역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일제의 야욕으로 무산된 데 대한 중국인의 항의에서 나왔다. 그런 만큼 파리 강화회의를 둘러싼 선후 관계는 다르다. 그렇지만 두 사건 모두 파리 강화회의를 계기로 반외세, 혹은 반제(反帝)를 통한 국가적 독립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거의 동시에 터져 나왔다는 점에서, 당시 한국과 중국은 같은 역사적 맥락 안에 있었다고 하겠다.

1910년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이후 중국인의 한국 인식은 크게 두 가지였다. 전통적 중화주의 입장에서 ‘잃어버린 속국’ 한국을 바라보며 회복해야 할 중화 영토로 동정심을 갖기도 했지만, 그보다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 부패와 분열, 무질서, 무능으로 망해버린 약소국으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반면에 한국인은 중화주의의 다른 모습인 사대주의 입장에서 중국에 의존적이기도 하였고, 신해혁명을 비롯한 중국 혁명에서 한국 독립의 전망을 찾아야 한다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런 한편으로 일본이나 서구 열강의 침략 아래 망국의 위기를 겪는 ‘근대의 낙오자’로 중국을 보는 부정적인 입장도 있었다.

그러나 3·1운동과 5·4운동을 겪으면서 양국의 상호 인식에는 커다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중국인은 한국인의 거족적인 반일 항쟁을 높이 평가하고, 마찬가지로 일본의 침략을 당하고 있는 자신들이 배워야 할 모범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나아가서 같은 적을 둔, 함께 협력해야 할 동지로서 한국을 바라보려는 연대 의식을 갖기 시작하였다.



5·4운동 지도자 천두슈

중국인의 인식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로 5·4운동의 중심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베이징대학 교수 천두슈(陳獨秀)를 들 수 있다. 천두슈는 3·1운동 이전 한국에 대하여 “국민은 게으르고 남의 나라 속국이면서도 군신들은 탐욕스럽기가 세상에 둘도 없는 나라였는데 일본에 합병된 이후 오히려 나라가 흥하고 도적도 사라졌으며 송사도 없어졌다.”라고 말하면서 일제의 통치를 오히려 두둔하기까지 했다. 그랬던 천두슈가 3·1운동 이후 “조선의 독립운동은 위대하고 절실하며 민의에 의거하고, 무력에 의거하지 않으므로써 세계 혁명사의 신기원을 마련했다.”라고 높이 평가했다. 마찬가지로 한국인에게도 중국은 일본이라는 공동의 적에 대항하기 위한 동지, 또 연대 대상으로서 더 적극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물론 재중 한인 지사에게 있어서 중국인의 지지와 지원을 얻는

것은 신해혁명 직후 시작된 본격적인 망명 단계에서부터 모색되고 있었다. 1912년 신규식, 김규식 등 상하이(上海) 난징(南京) 지역 한인 지사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한중 협력단체 신아동제사(新亞同濟社)도 망명 한인과 한국 독립운동에 대한 중국인의 지지 확보를 일차적 목표로 삼고 있었다. 그러나 더 본격적인 한중 연대의 모색은 3·1운동 이후, 특히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이후에 이루어졌다.

3. 1921~1923년 중한호조사 결성과 한중 연대 개시

3·1운동과 5·4운동을 전후하여 중국인 가운데에서도 특히 광둥(廣東)을 거점으로 하던 국민당 인사들과 진보 인사 가운데에서 반제의 동지로서 한국을 인식하며, 한국의 독립운동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5·4운동 직전인 1919년 4월, 상하이에서 만들어진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이런 분위기를 간파하고 한중 연대를 위한 조직 결성에 나섰다. 임시정부는 성립 직후 발표한 시정방침에서 대중국 선전외교를 가장 중요한 활동 목표로 삼고, 한중 친목회 결성을 당면한 사업으로 발표했다. 1920년 후반부터는 특파원(임시외교원)을 중국 각 지역에 파견하여 일제 침략의 죄악상을 알리는 한편, 한국 독립에 대한 중국인의 지지를 불러일으키는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1920년 4월, 광시(廣西) 지역(桂系) 군벌과의 연합정권이 깨지면서 같은 해 10월, 상하이로 옮겨온 국민당 인사 가운데 우산(吳山), 쉬첸(徐謙) 등 일부 친한파 인사들과 임시정부 요인의 회동에서 중한호조사(中韓互助社) 결성 문제가 논의되었다. 논의는 1921년 초 전국 주요 도시에 지부 조직을 만드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임시정부에서는 황영희, 조중구, 이우민 등을 특파원으로 파견하였고, 이들은 3월과 4월에 양쯔강 중류 후난(湖南), 안후이(安徽), 후베이(湖北)성의 주요 도시, 곧 창사(長沙), 안칭(安慶), 한커우(漢口) 등지의 진보적 인사들과 함께 중한국민호조사 혹은 중한호조사를 조직하였다. 5월에 이르러서는 각지 중한호조사를 총괄하는 조직으로 중한호조총사(中韓互助總社)가 상하이에 만들어졌다.

1921년 9월 임시정부 대표 자격으로 광저우(廣州) 호법정부를 방문하여 쑨원(孫文)과 회담했던 신규식의 광저우행을 계기로 만들어진 중한협회도 이름은 다르지만 중한호조사와 같은 한중 연대 조직이었다. 그 밖에 충칭(重慶), 하얼빈(哈爾濱) 등 지역에서도 중한호조사 조직이 만들어졌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아마도 1921년 한 해에 걸쳐 중국 전역에 중한호조사가 만들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중한호조사 조직의 중국 측 구성원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5·4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새로운 개혁 세력으로 등장한 각지의 진보적 청년단체 출신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창사나 한커우 지역 조직이나 상하이 중한호조총사 조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창사 중한호조사의



1922년 5월 상하이 중한호조총사 연회모임

경우, 진보적 청년단체인 신민학회와 문화서사(文化書社) 회원들이 여러 명 가입했는데, 그 가운데 곧이어 중국공산당 창당 멤버가 되는 마오쩌둥(毛澤東)과 허수형(何叔衡) 등이 있었다. 상하이 중한호조총사에는 중국 대표로 이사장을 맡은 우산과 함께 저우젠추(周劍秋), 황종한(黃宗漢) 등이 이사진에 포함됐는데, 이들은 모두 국민당 계열 인물이었다. 광저우 중한협회 중국 측 참여 인물로는 텅상첸(丁象謙), 시에잉바이(謝英伯), 주니엔주(朱念祖) 등 광저우 비상국회 의원들, 쑨원의 최측근 인물로 꼽히는 왕징웨이(汪精衛) 등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단체 명칭이 중한국민호조사, 혹은 중한호조사로 정해진 것은 1910년대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식계 전반에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했던 크로포트킨(Peter Kropotkin)의 호조론(互助論)과 관련이 있다. 크로포트킨은 러시아 귀족 출신으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활동했던 박물(생태지리)학자이자 무정부주의자였다. 그는 이전까지 대세를 차지하고 있던 테러리즘 위주의 무정부주의에서 벗어나서 자발적 상호부조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정치적 혁명을 주장하여 무정부주의의 새 지평을 연 것으로 유명하다. 그의 가장 대표적인 저서이자 사상인 『상호부조론(互助論, Mutual Aid)』은 다윈의 적자생존, 상호경쟁 중심의 진화론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며 생물이나 사회의 발전이 상호협력과 부조의 관계, 곧 ‘호조’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무정부주의자 리스청(李石曾)의 소개로 중국에 호조론이 알려진 후 신해혁명과 5·4운동 시기에 크게 유행하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의 확산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크로포트킨과 그의 호조론은 한국 지식인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으니, 1910년대 일본 유학생부터 시작해서 3·1운동 전후 시기에는 신채호

를 비롯한 재중 한인 지식자들에게서도 호조론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서구에서 그러했듯이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호조론은 국가 단위의 배타적 민족주의를 넘어서서 국가 간의 호조, 곧 국제적 상호협력과 연대를 강조하는 국제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었다. 한중 두 민족 간의 협력을 강조하는 입장이 ‘한중호조’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게 된 배경에는 바로 크로포트킨의 호조론 사상이 깔려 있었다.

중한호조사가 표방한 목표는 ‘호조’라는 단어에 걸맞게 양국 국민 간의 연대를 통한 상호협력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상황으로 인하여 한국의 독립운동을 중국인이 지지, 지원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삼고 있었다. 각지 중한호조사에서는 지역 언론에 한국 독립을 지지하는 내용의 선전 글을 실거나 한국 독립을 지원하는 내용의 강연회나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태평양회의를 비롯한 국제회의에서 한국 독립이 논의되어야 한다거나 한국 독립을 지지한다는 주장을 선언 형식으로 발표하기도 하였다. 또 중국어강습소 같은 한인 유학생을 비롯한 각지 한인들을 지원하는 형태의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그러한 활동을 위한 모금운동도 실시했다. 즉 1921년 봄 무렵부터 중국 각지에 중한호조사가 만들어졌고, 이 단체들을 중심으로 한국 독립운동을 지지하거나 재중 한인을 지원하는 각종 활동이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한중 간의 ‘호조’가 중국인이 한국인을 돕는 일방적인 방식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한인들이 나서서 중국인의 개혁운동을 지지하거나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일들도 추진하였다. 예컨대 박은식의 활동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상하이 중한호조총사 이사장 우산은 1920년 후반 상하이로 옮겨온 이후 중화전국도로건설협회라는 민간단체(社團)의 총간사를 맡고 있었는데, 당시 상하이를 중심으로 『사민보(四民報)』를 비롯한 중문 일간지 편집위원을 맡는 등 활발한 언론 활동을 펼치고 있던 박은식은 도로건설협회의 창립 단계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그뿐만 아니라 도로건설협회 기관지 『도로월간(道路月刊)』에도 논설위원(名譽纂述)으로 참여하여 여러 편의 논설을 기고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전개하였다. 『도로월간』에 실린 박은식의 글들은 도로 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 개혁운동을 통하여 중국의 통일과 근대화를 앞당겨야 한다는 내용이다. 당시 박은식이 ‘한중호조’의 한 가지 활동으로 중국의 사회 경제적 개혁운동과 민간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을 보여준다.

4. 1924~1928년 국민혁명과 한중연대의 본격화

중한호조사 조직에서 시작된 한중 간의 호조와 연대 활동은 1924년부터 개시된 국민혁명 단계에 가서는 또 다른 형태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24년부터 1928년까지 전개된 중국 국민혁명(反帝反封建) 혁명이었다. 소련의 군사 재정적 지원과 국공합작(國共合作)을 바탕으로 창설된 국민혁명군의 북벌전쟁을 통하여 봉건적 군벌의 할거 아래 있던 중국을 통일하고,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으로부터 국가적 독립을 회복하는 것이 목표였다. 소련과 코민테른의 정책적 결정에 의한 것이었지만, 국민혁명 과정에는 중국뿐 아니라 한국, 베트남을 비롯한 아시아 약소민족에 대한 지원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그 결과 국민혁명군의 기반이 된 황포(黃埔)군관학교에는 한인특별반과 베트남특별반이 만들어져서 적지 않은 숫자의 한국, 베트남 청년들이 입교하여 훈련받았다. 군관학교 졸업 후 이 청년 장교들은 북벌군에 편성되어 북벌전쟁, 곧 반군벌 통일전쟁에 투입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희생자를 내기도 했다. 한인, 베트남인 청년 장교들은 자기희생으로 중국 혁명이 성공한다면 그 후 중국의 지원을 받아 한국이나 베트남에서도 독립과 혁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 만큼 국민혁명은 또 다른 한중호조, 아시아 연대의 현상이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한다면 중국의 통일정부 수립을 가져온 국민혁명은 아시아 연대의 국제혁명이었던 것이다.

당시 황포군관학교 제4기생으로 졸업하고 국민혁명에 참여했던 김원봉은 이후 한중 연대의 기반 위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국민정부의 지원 아래 김원봉을 중심으로 조선의용대가 창설되고, 이어서 만들어진 한국광복군에 통합되어 항일전쟁에 참여하였는데, 바로 이러한 국제적 연대의 경험 속에서 가능했던 일이다.

상하이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한인 청년의 황포군관학교 입교를 주선하는 역할을 맡았던 여운형은 1926년 1월 광저우(廣州)에서 열린 중국국민당 제2차 전국대표대회(二全大會)에 초빙되어 ‘반제연대’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였다. 베트남 독립운동가 호찌민도 같은 국민당대회에서 피압박민족의 국제적 연대를 주제로 강연하였다. 여운형은 1926년 6월 광저우에서 개최된 북벌군 출정식에도 참석하여 북벌을 지지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같은 시기 일제의 정보에 의하면, 상하이에 있던 임시정부를 광저우로 옮기려는 시도가 여운형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었다고 한다. 이를 통해 당시 국민혁명의 중심지 광저우가 한인 독립운동의 중심지로까지 부상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여운형은 1927년 12월 후베이(湖北)성 우



국민혁명에 참여했던 여운형과 호찌민

한(武漢)에서 열린 국민정부 환영대회에도 참가하여 연설한 것으로 확인된다.

김원봉이나 여운형 등 한인들의 이러한 행적은 한인의 국민혁명 참여 사실을 잘 보여준다. 물론 1927년 4월의 4·12정변을 계기로 국공합작이 와해되고 장제스(蔣介石)에 의한 공산당 탄압이 광범하게 이루어지면서, 국민혁명에 참여했던 한인도 적지 않은 희생을 치르는 등 ‘호조’의 파열음도 확인된다. 그러나 큰 그림으로 본다면 중국의 통일과 독립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국가의 성립을 가져왔던 국민혁명이 사실은 한중호조, 나아가서 아시아 반제연대의 현장이요, 성과였던 것이다.

5. 1920년대 한중연대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1919년 3·1운동과 5·4운동을 겪으면서 만들어진 한중연대라는 시대적 요구는 1920년대 초반에 중한호조사의 결성을 가져왔고, 1920년대 후반에는 국민혁명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실현되었다.

그러나 1920년대 한중연대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지도 지적해야 마땅하다. 주지하듯이 1927년 12월과 1931년 7월, 한국에서 대규모 화교 배척운동이 발생했다. 중국 동북에서 있었던 중국인의 한인 이주자 배척에 그 원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백 명의 희생자와 대규모 화교 귀환을 부른 엄청난 참사였다. 이 두 사건의 배후에는 화교의 한국 진출을 둘러싸고 생긴 한국인의 반감, 일제 식민당국의 방관 정책 등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 국내 언론을 비롯한 지식인, 임시정부와 재중 한인 지사들의 즉각적인 화해 노력의 결과로 화교 배척 참사는 비교적 빨리 안정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들은 1920년대에 진행되었던 한중연대의 아름다운 기억들이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 것이었는지 잘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 첫째, 배타적 민족주의를 넘어서는 국제주의의 중요성이다. 1920년대 한국과 중국은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 곧 반제를 통한 독립의 획득을 지상 목표로 추구했던 만큼, 모두 강렬한 저항적 민족주의를 지향했다. 그러나 이러한 저항적 민족주의는 자칫 배



1931년 7월 화교 배척폭동으로 파괴된 평양시가지

타적 성격을 가지기 쉽다. 앞에서 강조했듯이 1920년대의 한중연대는 ‘반제연대’라는 국제주의적 인식과 협력에 기반이 있었다. 그러나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한복판에 놓이는 오늘날과 같은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은 국제적 협력은커녕 서로에게 배타적 민족주의를 먼저 앞세우기 쉽다. 그런 만큼 오늘날 역사 연구나 역사 교육에 있어서 배타적 민족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국제주의를 강조하여 성숙한 민족주의에 다가가려는 공동 노력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둘째, 상호배척을 대비하는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1920~1930년대 두 차례의 한국 내 화교 배척 사건이 주는 역사적 교훈처럼 상호배척이라는 암초가 얼마나 쉽게 나타날 수 있는지 한중 지도자들과 국민이 인식하고 대비해야 한다. 더군다나 오늘날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공간에서 감정적인 분위기가 배타성을 띠기 더 쉬워졌고, 전파 속도 또한 엄청나다. 온라인을 달구는 적대적 감정, 곧 혐종과 혐한이 오늘날 한중 관계를 쉽게 무너뜨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음을 볼 때, 그에 대한 항시적 대비책 마련은 충분히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1927년 화교 배척사건 발발 직후 안재홍을 비롯한 신간회 지도자들이 적극 나서서 화교에 대한 적대적 행동을 멈추도록 호소했던 것이 더는 일회성의 역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이 글은 집필자가 연구하여 작성한 것으로, 동북아역사재단의 공식 입장과 무관합니다.

| 참고문헌 |

- 김희곤, 2008, 『대한민국임시정부1: 상해시기』,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배경한, 2007, 『쑨원과 한국』, 한울
- 배경한, 2016, 『중국과 아시아』, 한울
- 이재령, 2020, 『현대 한중 관계사 연구』, 단국대학교출판부
- 조덕천, 2021, 『중한호조사와 한중연대』, 역사공간
- 조세현, 2010, 『동아시아 아나키스트의 국제교류와 연대』, 창비
- 한상도, 2021, 『한국독립운동과 동아시아 연대』, 역사공간
- 한시준, 2019, 『일제침략에 대한 한중의 공동항전』, 단국대학교출판부

| 배경한 |

중국 현대정치사 및 정치사상사를 전공하였고, 최근에는 근현대 한중관계사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장개석연구: 국민혁명시기의 군사적·정치적 대두과정』, 『쑨원과 한국: 중화주의와 사대주의의 교차』, 『왕징웨이 연구: 현대 중국 민족주의의 굴절』, 『중국과 아시아: 근현대 중국의 아시아 인식과 아시아주의』 등이 있다.

『동북아역사리포트』 지난 호는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창간호** 보존과 철거의 갈림길: 일제 인천육군조병창 유적의 현대사
- 제2호** 시진핑 시기 험한이 고조된 원인은 무엇일까
- 제3호** 남중국해 분쟁의 역사와 현황
- 제4호** 중국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역사 공정의 변화 -신간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속 한국과 동북아-
- 제5호** 약속 이행을 촉구받는 일본 메이지산업유산: 침략전쟁과 강제동원의 그림자
- 제6호** 중국이 주장하는 '문화원조'의 배경과 문제점
- 제7호** 미쓰비시(三菱) 사도(佐渡)광산: 완전한 역사(Full History)와 보편적 인권 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현장
- 제8호** 아프가니스탄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 제9호** '종번(宗藩)' 해석과 중국 대외관계 인식
- 제10호** 서양 고지도로 확인한 우리땅 독도와 동해 표기
- 제11호** 일본의 사도광산 등재에 따른 대응 방안
- 제12호** (영문판)미쓰비시(三菱) 사도(佐渡)광산: 완전한 역사(Full History)와 보편적 인권 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현장
- 제13호** 일본 언론에 공개된 '독도 사료'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제14호** 2022년 검정통과 일본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분석
- 제15호** 경찰 자료로 보는 램지어의 '태평양 전쟁의 성격' 비판
- 제16호** 중국 학계의 발해사 연구의 동인(動因)과 쟁점
- 제17호** 중국인에게 한국전쟁은 어떻게 기억되어 왔는가
- 제18호** 1947년 미 군정장관, 독도 출장을 허가하다
- 제19호** 역사문제와 한일관계 -일본은 사죄하고 반성했는가-
- 제20호** 2022년 일본 참의원 선거와 한일관계 전망
- 제21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결의 과제
- 제22호** 광복 77주년, 한일관계의 회고와 전망
- 제23호** 한국-중국 수교에 가려진 한국-중화민국 단교 30년
- 제24호**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을 기억하자
- 제25호** 동북공정 20년, 현황과 과제
- 제26호** 중국에서 사라지는 우리 고대사
- 제27호** 한국과 베트남 관계 30년을 되돌아본다
- 제28호** (영문판)약속 이행을 촉구받는 일본 메이지산업유산
- 제29호** 중국 장성(長城)이 한반도 서북부지역까지 들어왔다고
- 제30호** 연·진·한 장성은 요동지역에 있었을까
- 제31호** 우리 역사 속의 러시아를 생각하며
- 제32호** 중국의 방어적 민족주의와 공세적 문화 주장
- 제33호** 독일-프랑스 역사 화해의 회고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미래
- 제34호**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해석전략에서 사라진 '강제(forced)'
- 제35호** 일본제국 전쟁사에 비추어본 21세기 일본의 안보전략 평가
- 제36호** 시진핑 3기와 천하주의 그리고 동아시아의 갈등
- 제37호**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의 기원과 전개 과정
- 제38호** 음식도 발효를, 생각도 발효를 -김치와 파오차이의 차이-
- 제39호** 돌궐사의 시각에서 바라본 중국 대외관계사
- 제40호** 히로시마평화기념공원과 한국인원폭희생자위령비
- 제41호** 2023년 검정 통과 일본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분석
- 제42호** 독일과 폴란드의 역사 화해를 위한 공동 교과서 프로젝트
- 제43호** 고구려의 대당방어체제(對唐防禦體制)와 645년 전쟁
- 제44호** 한국인의 여름 나기, 삼계탕의 연원과 발달
- 제45호** 베트남 역사와 대중(對中) 관계
- 제46호**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기억과 한중일 삼국
- 제47호** 몽골 지폐 도안에 담긴 역사와 국가 정체성
- 제48호** 16세기 한중 관계와 예의지교(禮義之交)
- 제49호** 관동대지진 100주년 -관청 기록의 봉인과 '민중 폭력'의 재검증